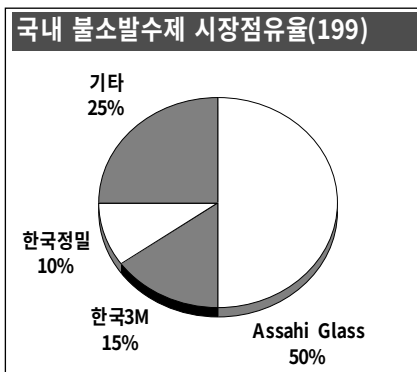


불소발수제 국산 "호전"

엔고 · 신제품 출시 힘입어 ... 94년 2000톤 규모

수입품 일색이던 불소발수제 시장에서 국산 신제품이 출시되면서 인식이 제고, 그동안의 부진을 씻고 점차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면 · 혼방 등의 섬유산업에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불소발수제 계면활성제가 그동안 한국정밀화학의 국산화 성공에도 불구하고 일본산의 시장방어를 위한 가격공세에 부딪혀 고전해 왔으나 최근들어 국산이 초엔고를 등에 업고 제품 다양화를 위한 신제품 출시 등으로 마케팅을 강화하면서 급속도로 수입산과의 간격을 좁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정밀화학이 95년초 발매한 불소발수제는 기존의 KF-770W시리즈를 보완해 Assahi Glass의 ASSAHI GUARD-713과 460에 대응한 KF-700 및 700A인데 현재 수요기업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들 신제품들의 가격은 종전과 비슷한 수준인 Kg당 5000원선인데 일본산이 12달러선에서 5달러선으로 대폭 떨어지면서 국산의 시장확대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해 왔으나 최근 초엔고의 영향으로 5.5 6달러선으로 오르는 등 상승세로 반전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입산에 대한 국산의 시장잠식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와함께 내수보다는 수출용으로 선보인 Conc type의 KF-700C는 일반 발수제보다 고가인 Kg당 9000 9500원선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정밀화학의 내구성 발수제인 KF-G-2000 가격은 생산비를 30%정도 절감해 Kg당 1만3000 1만5000원선으로 3M의 FC-232 및 Ciba-Geigy의 Ole Poble-s가적인 1만9000 2만5000원선에 비해 훨씬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불소발수제 시장규모는 2000톤, 100억원으로 후방산업인 섬유산업이 최근 고급화의 길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장전망이 비교적 밝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불소발수제 시장점유율은 대영무역을 통해 국내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Assahi Glass가 50%, 한국3M이 15%, 한국정밀화학이 10%, 기타 25%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한국정밀화학의 시장점유율은 5%미만이었으나 최근 판매호조에 힘입어 10%대로 올라서는 등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화학저널 1995/6/19>